

P-8 약물에 의한 치은비대의 치주관리(Periodontal management of drug induced gingival overgrowth)

이영규, 임종갑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중앙병원 치과

최근에 소개된 cyclosporin은 장기이식과 자가면역질환에 그리고 calcium channel blocker는 고혈압과 협심증의 치료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런 약물에 의한 치은비대를 보이는 환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치은비대의 정확한 기전이 밝혀지지 않았고, 치은비대의 치료법도 확실히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 또한 원인약물을 다른 약물로 대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치은비대를 갖는 환자의 치주관리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구강위생지도와 치석제거 및 치근활택 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보고한 경우가 있으나, 대개는 외과적 처치를 동반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복적인 외과처치가 필요하며, 특히 장기이식 후 cyclosporin을 투여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출혈경향이 높아 외과적 처치에 어려움이 따르고, 상대적으로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신장이식환자에서 호흡기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azithromycin을 투여한 후 치은비대의 감소를 보고한 이래, azithromycin의 치은비대에 대한 효과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 Azithromycin은 macrolide계 항생제로 치주적으로 여러 가지 유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장기이식환자의 경우 예방적 항생제 투여에 대해서 이론이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 예방적 항생제 투여를 반대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치은비대의 치료에는 치은비대에 효과가 있는 항생제의 투여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해서 외과적 처치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면 이는 환자나 술자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신장이식 후 면역억제제 및 항고혈압제를 동시에 투여 받아, 고도의 치은비대를 갖는 환자에서 azithromycin을 투여하고 치주관리를 하고있는 증례를 보고한다.